

決 議 文

이 내용은 지난 2월 26일 열린 한국기업목장협회의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의 전문임.

목장을 개발해서 쇠고기와 우유등의 畜産食品을 生産하는 일은 國土의 효율적인 이용면에서나 또는 動物性식품을 증산해서 수요증가에 對處하고 나아가서는 국내 자급충당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체위 향상과 식생활개선을 꾀하는데 그 의의가 대단히 크다고 본다.

이런 觀點에서 政府는 약 10년 전부터 목장개발조성을 위해서 強力한 조장 시책을 펴 나왔다. 이 시책에 따라서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施策에 적극 참여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목장을 개발해서 경영하는 사업이란 그리 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 基盤造成에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초기자본투자가 거액이라는 점과 아울러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다는 점, 그리고 투자자본에 비교해서 생산액이 적고 또 수익율이 극히 낮은 점등을 종합해서 감안한다면 사업성 내지는 기업성이 극히 희박한 특징을 지닌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간에 막대한 결손을 감수하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식자원개발이라는 정부시책에 부응코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한국의 축산의 기수로서 그간 말없이 묵묵히 일해온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낱 희망을 가지고 적당한 여건성숙의 계기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국민소득증대에 따라 쇠고기 수요는 급증하였다. 여기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정부에서는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자 가격에 대해서는 그 보장을 외면한 채 소비보호자나 가격안정이라는 目的만을 내세워 값싼 쇠고기를 무제한 수입 공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彌縫的인 축산정책때문에 10여년에 걸쳐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개발투자된 목축업은 이제는 극도의 곤경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업사태가 속출하고 사경을 헤메이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바라고 원하던데 굳건하고 一貫性있고 生産者인 목축업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축산정책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한국축산의 먼 앞날을 염려하면서 우리 목장협회 회원 일동은 1979년도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바를 관계당국에 건의한다.

첫째 : 쇠고기수입을 중지하고 국산쇠고기값을 현실화해 줄 것.

쇠고기를 많이 수입해서 국민각자가 많이 섭취하도록 하는 정부배려를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생산기반이 연간 겨우 8~10만M/T밖에 안되는 것을 감안할 때 량적으로 너무 많은 쇠고기를 수입해서 공급하고 있다. 그 결과는 국내산 쇠고기의가격을생산비에도 못미치도록 출가가격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조치로 나

타났다.

이에 우리나라 쇠고기 생산기반은 이런 조치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을 투자한 기업목장 들은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부족한 분은 이것을 부분적으로 수입보충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생산기반까지 무너뜨려가면서까지 마냥 수입만으로 충당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므로 생산 업자인 목축업의 건전한 보호대책과 함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타당한 축산시책을 강구해 줄 것.

둘째 : 초지조성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묶여있는 여러가지 제한조항을 풀어서 시정하고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권화를 도모해줄 것.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급사료 증산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묶어두고 있는 여러가지 제약조항을 풀어서 초지조성에다 우선을 두어 開發하도록 도모하고 동시에 초지조성 보조금도 현행보다 증액시켜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

셋째 : 牛種은 경제성이 높은 신종으로 개선해줄 것.

한우는 우리민족과 함께 수천년동안 사육해 나오면서 우리농사에 역축으로서 기여한 공도 크지만 지금은 기계화에 밀려서 축력가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육용능력을 개량해서 장기적 안목에서 쇠고기 증산을 꾀할 수 있도록 개량방법을 과감하게 단행할것을 촉구한다.

또한 순수번식에 의한 선발개량 방법만으로는 대량 개량효과란 극히 기대 하기 어려우므로 외국의 우수품종의 종모우 또는 정액에 의한 전면혼혈방법을 택하도록

제언한다.

그리고 특히 한우나 육우의 번식사업은 그 수익성에서 결손을 면할 수 없는 실정임으로 그 증식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시책을 베풀어 줄 것.

네째 : 사료공급량의 원활과 함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원료의 수입과 판매가격을 자유화해 줄것.

양축가로서는 좋은 품질의 사료를 싸값으로 손쉽게 구득할 수 있도록 현행의 사료수급제도 및 정부방침을 개선해서 원료수입을 자유화해 주고 아울러 묶여 있는 판매가격을 풀어서 자유경쟁을 할수 있도록 해 줄것.

다섯째 : 대용유사료와 이유사료(스타터)의 수입을 자유화해 줄것.

대용유사료와 이유사료는 전체의 배합사료 수요량의 불과 0.2~0.5%에도 못미치는 少量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가축의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乳·幼兒期의 사료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 품질 또한 우수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현행의 제도나 정부의 방침은 저질품만을 특정 경로를 통해서 공급할수 있도록 묶어두고 있는 것은 축산진흥시책상으로 볼때 하나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용유 사료 및 이유사료만은 품질이 우수한 외국제품을 수입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입을 자유화 해줄것.

여섯째 : 비육용 솟송아지(去勢)를 수입하도록 허용하여 기업목장에서 육성비육케 함으로써 고급신선육을 국내에 공급하도록 해주고 아울러그 동안 많은 출혈과 함께 시련을 겪어

나온 기업목장에 대한 보상방법이 되도록 善處해 줄것.

기업목장은 대개의 경우 한우의 번식과 육우번식 사업에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는 생산된 숫송아지 및 시장에서 구입한 숫송아지를 살펴보면 번식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곧 송아지 생산 원가가 된다. 본래는 생산물을 판매한 수입만으로서 사육비용(생산비용)을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목장을 당국이 권장한 이후 약 10년을 경과해 나오면서 아직 까지도 적절한 가격형성이 이루어 진적이 없는 실정이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수입최고기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축산여건 조성의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숫송아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숫송아지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계획된 규모의 두수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에서 볼 때도 비교적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기업목장의 결손이나 출혈을 보상해주는 방법의 하나로서 정부에서 기업목장에 대하여 숫송아지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것.

일곱째 : 우유가공업자가 원유를 수매하는 지역을 정부가 지정(수유권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유우 사육자는 생산된 원유를 정부가 지정한 일정한 가공업자에게 한해서 판매를 해야하는 불합리점을 개선하고 이것을 시정해서 수유과정에서 일어나는 가공업자의 횡포를 막아줄 것.

우유수매과정에서 우유가공업자는 원유를 운반해가는 도중 여러군데를 들르기때문에 장시간이 경과되고 또 가져가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酸敗의 경우에는 마땅히 가공업자

가 그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자에게 현품을 반송하고(부패된 것) 대금 지불이나 보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생산업자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유가격은 유지방 함량에 따라서 3.4%를 표준으로 하고 그 함량차 0.1%마다 일정한 값을 가감하도록 정부에서 지시하고 있는데 원유수매과정에서 이 유지율을 측정할 실제보다는 부당하게 낮게 잡음으로 해서 원유생산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져다 주고 있다. 이 밖에도 항생제 검출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 반품 및 수유거절을 하는 등 생산자는 이중, 삼중으로 부당하게 손해만 입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원유 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유수매권 지정을 해제해 줄 것.

여덟째 : 축산당국은 肉乳를 자급하기까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 적극 추진해 줄것.

68년을 출발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실시된 우리나라의 축산진흥정책은 주변여건에 발맞추어 다각도로 주력해 왔다. 또 여기에 따라서 어려운 사업인 목장조성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결손과 출혈을 함께 감수하면서도 한낱 희망과 사명감을 가지고 호황의 계기가 오기만을 기대하면서 오직 목축업에만 열과 성을 다해온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도 남음이 있다. 앞으로는 축산인이 마음놓고 축산진흥을 위해서 종사할 수 있도록 축산당국은 최고기나 우유를 자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 성취될 때까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관성있는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책임있는 축산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바란다.

1979년 2월 26일

社團 韓國企業牧場協會 會員一同
法人

우리會員一同은 上記 總會決議文 內容을 全幅的으로 支持하고 署名捺印함.